

【특집: 2011년 축종별 비육우 시장 전망】

비육우 사료산업 전망



박응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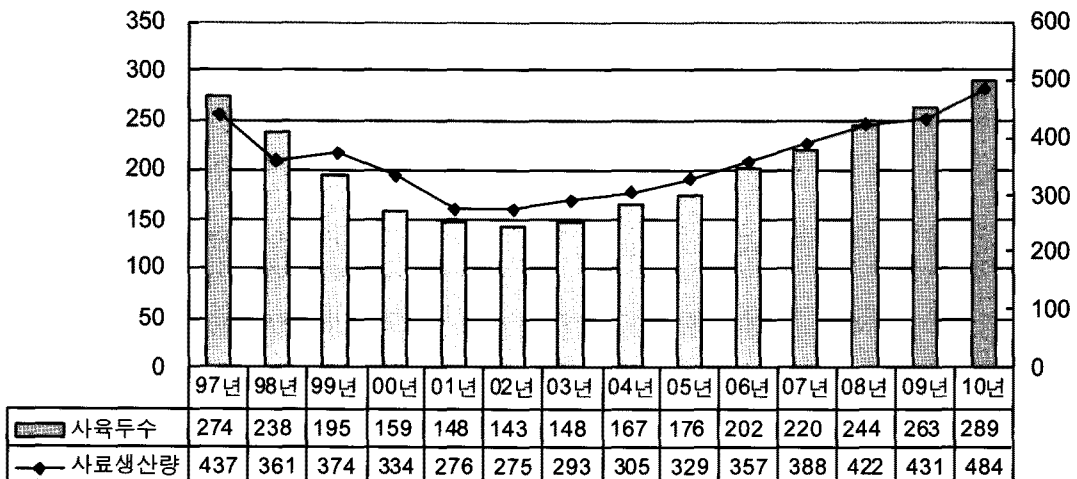
(주)삼양사 축우PM 부장

비육우 배합사료산업이 2010년을 기점으로 매우 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육우가 2010년 9월 291만두의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비육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484만 톤이 예상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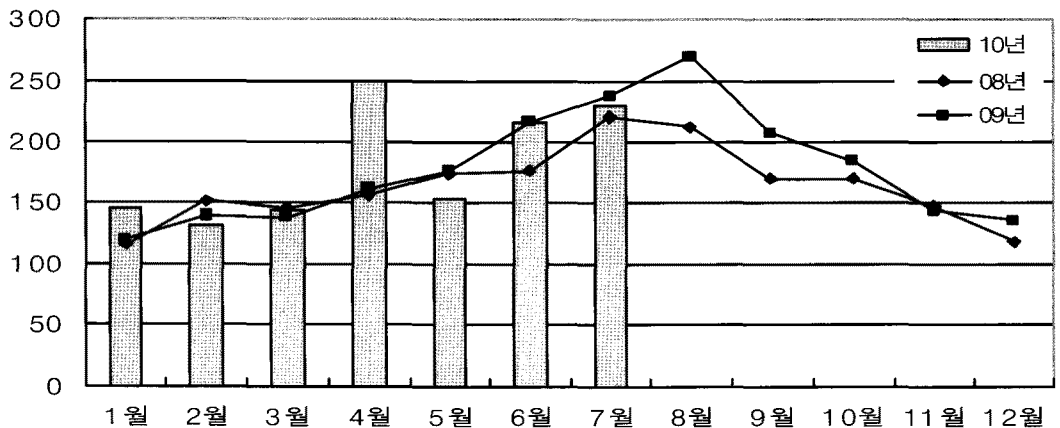
비육우 사육두수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비육우사업 자체의 수익률이 농업의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이지만,

그 배후에는 “쇠고기 소비량 증가”, “쇠고기 수입량 감소”, 쇠고기 생산 이력제 실시 등의 3박자가 맞아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육우사업의 높은 수익성은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 비육우 사육두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한우정책의 사용량이 올 7월까지 전년대비 6.8% 증가하



<그림1> 비육우의 사육두수와 비육우사료 생산량 추이 (단위 만두,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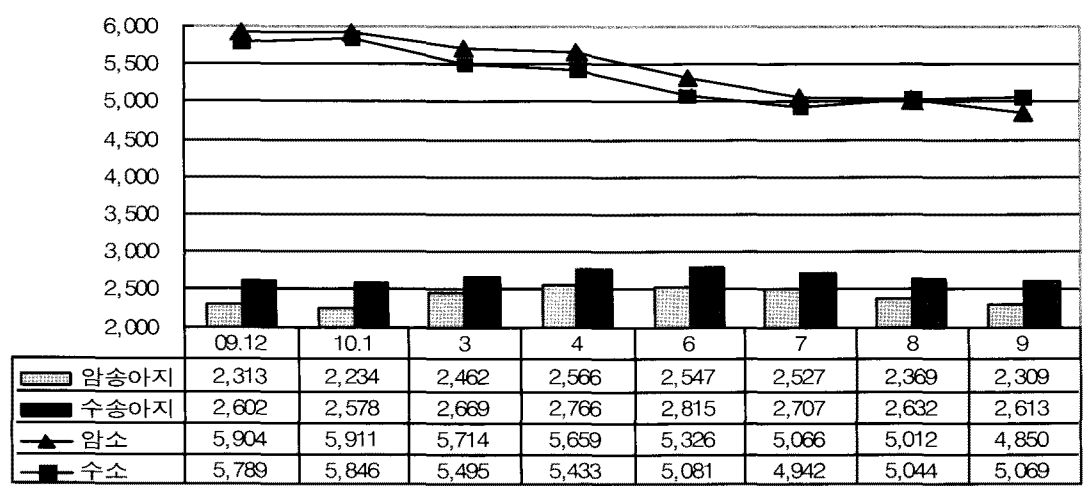
<그림2> 한우정액 판매량 추이 (단위: 천스트로우)

였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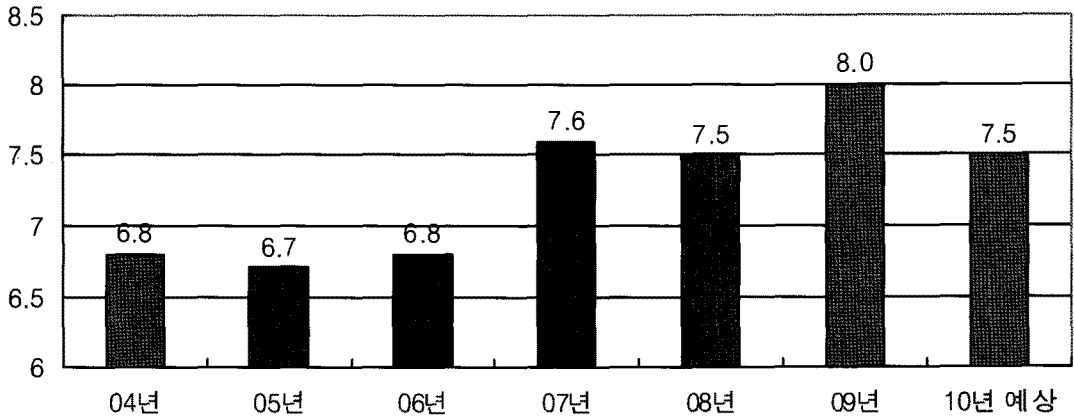
즉 내년 상반기에는 비육우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육우 사육두수 증가는 쇠고기 공급량과 직결되므로 쇠고기의 추가적인 소비량 증가 없이는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이미 올해에 반영되어 2009년 12월을 기점으로 한우의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약 보합세를 보여왔다(그림3).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1인당 최고기 소비량의 감소와 수입쇠고기의 증가이다.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쇠고기 소비량이 올해 초 규제역 발생,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한우의 소비를 증가를 주도한 한우 정육점 식당의 경영난 그리고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이



<그림3> 한우 큰소 및 송아지 산지가격 변화 (단위: 천원, 큰소 600kg기준)



<그림4>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추이 (단위 kg)

작년 대비 6% 가까이 감소를 하였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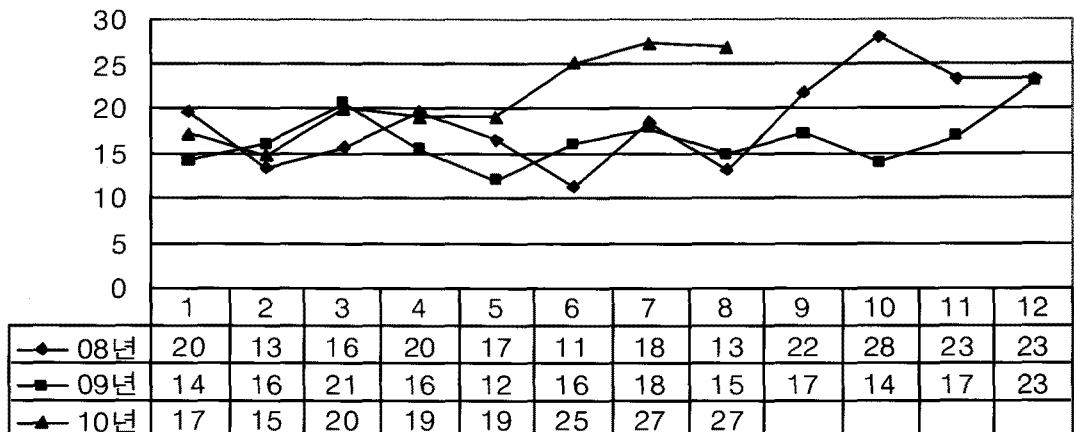
이러한 국내의 불안정한 국내산 쇠고기 시장의 악조건 속에서 수입산 쇠고기는 미산 쇠고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꾸준히 증가하여 수입량이 올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그림5).

내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양축가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비육우 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올해초까지는 곡물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우선 환율이 1,160원 대를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의 러시아의 소맥 수출중단에 따른 옥수수과 소맥의 가격상승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불안정한 환율의 변수는 있으나,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



<그림5> 쇠고기 수입량 추이 (단위: 천톤)

<표1> 곡물가격 추이 (단위: \$/MT)

품 목	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 1/4분기
옥수수	230	220	230	225	275
소맥	205	210	220	205	215
팜박	80	95	110	125	155
야자박	135	125	140	160	180

(본 Data는 사료협회 자료를 참고로 일부 수정한 수입원료의 경향을 보여주는 Table임)

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아직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뭄으로 인한 곡물사정이 좋지 않으며, 중국의 사료용 곡물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원료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산 옥수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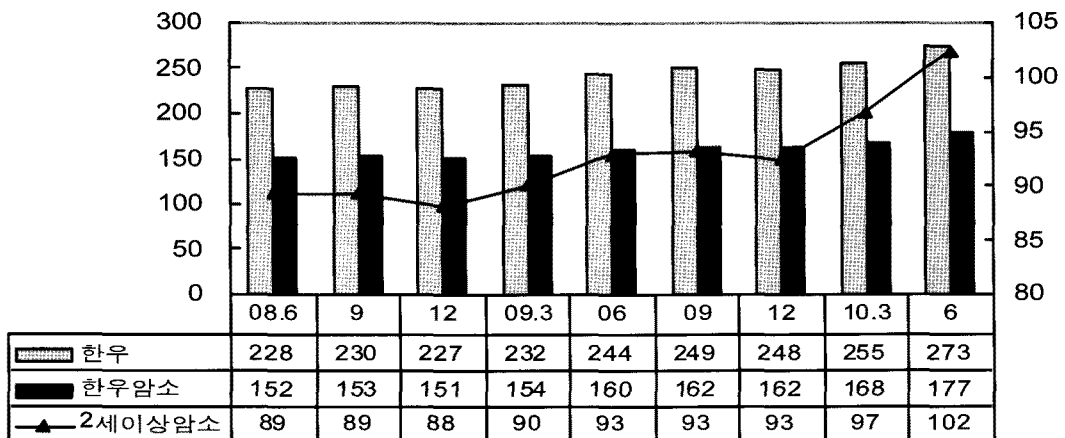
결국 2011년 비육우 양축농가들에게는 비육우의 판매가격 하락과 사료비 인상의 이중고가 예상되며, 이것은 양축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내년에는 비육우 사업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업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우선 첫 번째로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에

따른 송아지가격의 하락과 번식우 사육농가들의 암소비육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한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산 이상의 한우암소의 비육 도태가 확산되며, 이로 인해 향후 점차적인 한우의 사육두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즉 2011년에는 번식우사료의 소비 감소 및 비육우 사료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양축가들의 고급육생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쇠고기 생산이력제의 시행에 따른 국내에는 한우 고급육시장이 정착이 되었으며, 전체 한우 가격이 하락하여도 1+등급 이상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6> 한우 암소 사육두수 추이 (단위: 만두)

즉 쇠고기 소비감소와 수입쇠고기 증가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가격의 하락은 1등급 이하의 일반 한우 혹은 육우에서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한우의 등급간 가격 격차는 보다 크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축가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고급육 생산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고급육 생산사료 및 기술보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육우용 TMR사료의 수요증가이다. 이미 각 지역한우단체에서 설립한 TMR공장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가배합 비육우농장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육우 TMR사료는 고급육생산과 사료비 절감의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료비 절감 측면에서 일반 사료회사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팜박, 야자박, 타피오카등의 경제성원료의 사용증가가 예상된다.

네 번째로 각 지역별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의 대형 한우 생산자 단체들에 대한 배합사료업체들의 판매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형농장들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한우농장들은 사료비 절감 혹은 지역 브랜드한우 출하를 위해 각 지역별 브랜드 한우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전체 혹은 부분적인 지역 조합사료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조합사료들은 대부분 OEM 혹은 ODM사료의 형태로 생산·관리되므로 배합사료업체에서는 고객관리가 용이하며, 단기간 물량확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

료회사들간의 이런 조합사료들에 대한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비육우 사료의 수요증가로 인한 비육우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 후레이크 및 가공사료의 생산 Cape 부족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운반비 절감 그리고 동물성원료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효율적인 원료사용을 위해 사료회사들간의 축종별 배합사료의 생산공장 통합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업체의 R&D투자 증가 할 것이다. 2011년 7월부터 사료첨가제용 항생제사용이 전면 중단되며, 동물성원료(BSE 대상원료 확대, 어분, 어유, 우지등 포함) 사용제한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친환경, 무항생제등 웰빙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증가로 인해 이러한 축산물 개발을 위한 사료제품에서의 R&D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비육우산업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성장기 후에는 조정기를 겪게 마련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비육우산업에서의 조정기는 2011년에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양축가들은 보다 수익성이 높은 고급육생산에, 그리고 배합사료업체에서는 이러한 양축가들의 요구에 대응한 고급육생산 사료의 개발과 사양관리 서비스 그리고 비육에서 출하까지의 수익성개선 시스템의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